

금요 양성 2026년 6월 12일

재속 프란치스칸 (OFS) 예절 알기 (1부)

5월 초에 금요 양성은 입회와 서약 예절에 집중했었고 지난 주에는 재속 프란치스칸의 삶에 있어서 영속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많은 형제회와 개인 회원들은 새로이 발간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예절서 (*Ritual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우리의 중요한 예절들과 이정표를 아는 것에 덧붙여, 교회의 한 수도회를 위한 예절의 목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재속회의 예절(Ritual)의 내용을 깊이 탐구하는 것은 영속 양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배경

- 1955년 이전에는 재속프란치스코의 유일한 예절서는 **3회의 동반자 (Tertiary's Companion)**에 포함되어 있었다.
- 작은 형제회의 라틴어 문서에 포함된 3회 예절의 단편들이 Philip Marquard 신부에 의해 수집 정리되어서 **The Fraternity Book**이라는 제목으로 프란치스칸 헤럴드 프레스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 후 1955년에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 마크 헤게너 신부(Fr. Mark Hegener)가 **재속 프란치스코회 공적 예식을 위한 예절서(The Ritual for Public Functions, Franciscan Third Order)**를 편찬하여 출판하였다.
- 1966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의 정신에 비추어, 프란치스코회 총평의원들은 전 세계 프란치스코 가족에게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 회헌, 그리고 예절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예식 규범서, 곧 예절서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정신에 따라 완전히 개정되어야 한다.**”
- 이 결과로 공식 행사를 위한 새로운 예절서가 작은형제회 Benet A. Fonck 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 1978년 개정된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이 교황 바오로 6세의 의해 6월 24일에 인준되었고 10월 4일 4명의 프란치스칸 총봉사자들에 의해 공표되었다. 그리고 즉시 새로운 회칙에 상응하는 예절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 “새로운 예절서의 라틴어본이 1984년에 **성사성 및 경신성 (the Sacred Congregation for Sacraments and Divine Worship)**에 의해 승인되었고, 그런 후 영어본은 성사성에 의해

1985년에 승인 되었다.

- 개정된 국제 형제회 회헌과 예식서는 2000년에 선을 보였다.
- 2022-23년에 우리 출판사가 예절서는 곧 “절판”될 거라고 알려 왔고, 미국 국가형제회는 저작권을 받았다. 그때 개정판을 주문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2024년에 출간되었으며 우리중 많은 사람들이 형제회나 개인 소장으로 개정판을 소지하고 있다. (2024판은 이 당시에 영어판만 있었다. 그러나 예절서 자체는 또한 스페인어, 이태리어, 불어판이 국제형제회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https://ciofs.info/library/official-documents/>)

공식적인 한국어 예절서는 한국 국가 형제회에 발간한 기도서 **발자취를 따라서**에 실려 있고 **Apple App, Android, Google Play** 에서 **발자취를 따라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예절서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재속프란치스코회에게, 성문화된 예절서는 우리가 전 세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없어서는 안될 닻이다. 우리는 수도원은 없고 단위 형제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문서로 기록된 예절은 하나의 통합된 국제 수도회로 남아 있기 위해 필요한 전 세계적 통일성과 제도적 구조를 제공한다 그것은 전례적인 일상을 표준화하고 형제회 선거를 관장해 주며 형제회를 이끄는 객관적인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정기적인 모임을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시켜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문 예절서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니게 되는 교회법적 서약의 깊은 신학적 의미와 무게를 보존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입회 예절부터 엄숙한 서약까지 양성의 단계에 대해 정확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식을 성문화하여 프란치스칸 복음의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타당하고 존엄하게 실행하도록 확신시켜준다. 성문 예식서는 ‘세대적 표류(세대를 거치면서 본래 정신이 변질되는 현상)로부터 성 프란치스코의 원래 정신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평신도 가톨릭 신자들이 규율을 갖추고, 보편적으로 일치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준다.

형제회안에서의 토의

- 위에서 제시된 재속회의 역사와 설명 중에 당신을 놀라게한 내용이 있는가?
- 형제회가 (1985년판이나 2024년 판) 예절서를 소장하고 있는가? 형제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국제 예절서는 공식적인 OFS 언어로 국제 형제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ciofs.info/library/official-documents/>
- 예절서가 형제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다음주는

영속 양송을 위해 예절서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겠다.

2024년 영문 예절서는 다음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https://gospel-to-life-bookstore.square.site/product/ritual-of-the-secular-franciscan-order/65?cs=true&cst=custom>